



시로 읽는 성보순례
연꽃 위에 불 밝히시니
국보 제103호 중흥산성쌍사자석등
통일신라시대 >2면

현대불교

애욕은 늪과 같고, 시퍼런 칼날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 애욕에 얽매인다
애욕은 남도 해치고 자신도 해친다.
『법구경』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10월 1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914호 2012년 11월 14일 수요일

수행 풍토 증진 기대 총림법 개정은 급선무

조계종 총림 8개로 확대, 그 의미와 과제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제13교구본사 쌍계사, 제14교구본사 범어사가 조계종 중앙총회 제192차 정기회에서 총림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조계종 총림은 해인총림 해인사, 조계총림 송광사, 영축총림 통도사, 덕숭총림 수덕사, 고불총림 백양사와 더불어 8개로 늘어났다.

이 같은 총림 지정 움직임은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범주사는 지난 10월 26일 총림 지정을 총무원에 신청했고, 3곳의 교구본사도 총림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3월 총회가 지나면 조계종 24개교구 본사 중 절반 가량이 총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교계 안팎으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현재 기존 5개 총림을 포함해 신규 지정된 3개의 총림 모두 '종합 수행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가지는 것'이라는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조계종 총무부가 파악한 기존 5대 총림 운영현황에 따르면 이들 모두 염불원이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덕숭총림 수덕사의 경우 율원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동화·쌍계·범어사

중앙총회서 총림 지정

총림 실사특위도 구성

본사 절반 가량 총림 추진

방장스님 권한 견제해야

임회 구성 재정립 필요

새로 지정된 3개 총림도 다르지 않다. 동화사는 현재 선원과 승가대학(강원)만 운영되고 있으며, 율원은 2010년 율학승가대학원 인가를 받았지만 인원이 모이지 않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쌍계사는 선원과 승가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율원은 국사암에 율학승가대학원을, 염불원은 2013년 건립되는 법패전수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범어사 역시 선원과 승가대학은 운영하고 있지만, 염불원은 특정 산내암자를 지정해 운영한다는 계획만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중앙총회 의원 무에 스님은 "24개 교구본사가 모두 총림이 되도 좋다. 다만 종현 총림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갖춘 후 총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앙총회가 총림을 추가 지정하

면서 8개 총림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총림실사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이 같은 우려에서다. 위원장에는 원학스님과 총회의원 장적, 성직, 해립, 대오, 범해, 주경, 장명, 종민, 상화스님, 총무부장 지원스님, 기획실장 능도스님, 교육부장 법민스님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실사위는 총림의 요건이 미비할 경우 해제 신청을 할 계획이다.

또한, 방장 스님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총림 운영 권한에 대해서는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규정된 총림법엔 방장은 총림을 대표하며 대중 수행을 지도·감독한다.

또한, 수좌, 선원장, 율주, 염불원장 등 총림 주요 소임에 대한 추천과 임명권도 가진다. 대다수의 인사와 종무 행정 권한이 방장 스님에게 집중돼 있는 것이다.

인덕과 명망을 가진 인물이 방장 스님으로 주석할 경우 크게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내부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 통도사에서는 주지 재임을 위해 방장 교체 시도하기도 했으며, 최근 백양사는 방장 스님 임직 후 생긴 갈등으로 불교계 전체 명예를 실추한 사건도 발생했다.

방장 권한을 견제하는 내용은 담은 총림법 개정의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다.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11월 7일 조계종 자성교패선결사추진본부가 개최한 7차 야단법석에서 "총림의 방장이 주지 후보추천권을 가짐으로써 사중 내 이해관계에 얽히버릴 우려가 크다"며 "방장이 이해관계에 얽히면 공부하는 스님을 모시지 못한다. 방장 권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총림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총림 지정 확대"라는 주사위는 이미 굴러갔다. 이제는 현대 사회에서 총림이 가지는 위상과 역할에 대한 종단적 논의와 이에 따른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종일 기자 molp79@hyunbul.com



공명한 18대 대통령 선거를 기원하며 7대 종교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9일 서울플라자호텔 4층에서 종교지도자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은 종교 지도자들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장면. 사진=박재관 기자

“18대 대선 공명선거로 만듭시다”

7대 종교지도자들 9일 '공명선거 선언문' 발표

공명한 18대 대통령 선거를 기원하며 7대 종교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9일 서울플라자호텔 4층에서 종교지도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불교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종교지도자협의회 상임대표)을 비롯해 7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국민들에게 공명선거 동참을 촉구했다.

7대 종교 지도자 대표로 선언문을 낭독한 자승 스님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종교지도자들은 12월 19일 18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총림을 지키며 함께 노력할 것

을 다짐한다"고 전했다.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민주정치 발전과 국민화합 위해 바르고 깨끗한 선거실현△국가와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표 참여 △정당 후보자의 정책 공약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 보기 △선거법 위반 행위 경계하고 지적하기 등을 제안했다.

이어 정당과 후보자에게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나 비방 흑색선

전으로 국민 의사 왜곡하지 않기 △돈 선거 뿌리 뽑기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하기 등을 촉구했다.

선언문 낭독 후에는 캘리그래피 퍼포먼스를 통해 공명선거를 발원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지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홍재철 대표회장,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김희중 대주교,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유교 최근덕 성교관장, 천도교 임운길 교령, 중앙선관위 김능환 위원장,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혜숙 기자

조계종 내년도 예산 425억 원 확정

중앙총무기관 예산안 통과… 완결 사업에 중점 편성

불기2557(2012)년 조계종 중앙총무기관 예산이 425억여 원으로 확정됐다.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향적)는 11월 7일 오전 10시 속개한 제192차 정기회에서 '불기 2557년 중앙총무기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했다. 오늘 확정된 종단 중앙총무기관

예산은 일반회계 227억 7천만여 원, 특별회계 197억 9천만여 원 등 총 425억여 원이다. 이는 전년도 대비 10억여 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올해 예산 기초에 대해 기획실장 능도 스님은 "33대 집행부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쇄신 과제 등 중점성이 있는 사업에 예산

을 중점 배치했다"며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보조금과 인건비는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동회 등 종단 사업의 주무부서가 이관된 부분도 눈길을 끈다. 연동회는 총무부에서 문화부로, 종림 선원 지원은 교육원에서 총무부로, 군종교구는 총무부에서 포교원으로 주무부서가 이관됐다. 신종일 기자

“연등 철거 지시, 과도한 법 집행”

종평위, 경산시 등에 갓바위 연등 철거 비판 공문

경산시가 갓바위 부처님 옆 연등 시설물을 불법으로 규정해 철거하라는 공문 지시를 내린 데 대해 불교계가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해용, 이하 종평위)는 11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경상북도청, 경산시청에 비판 입장 공문을 전달

했다. 종평위는 공문에서 "매년 설치해 왔던 연등 시설물을 돌연 불법으로 규정된 배경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 관계기관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종평위는 "상설구조물도 아닌 이기등을 현상변경 허가 받아 설치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 논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법 해석이요, 행정조치"라며 "관계기관의 이런 결정과 조치는 국민의 자유로운 종교 행위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종평위는 "특정종교에 불리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했다는 종교 편향 시비마저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부처님오신날 연등 설치까지 문제 삼는다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신종일 기자
관련 기사 31면

914호 INDEX

종합 2·3
초기 경전 니까야 4부 완역
문화재관람료 신용카드 의무화
조계종 대선캠프에 정책 제안
목조문화재 방재 대책 해외 사례

시방세계 5
정토회 만일결사 7700원 현장



나의 서원 나의 수행 16·17
명성 스님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서용스님 탄신 100주년 참사람 결사법회

고불총림 백양사에서는 한국불교의 큰 어른이셨던

서용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하여

참사람 결사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대덕 큰스님들을 모시고

‘참사람 운동’을 펼치셨던 서용 큰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선(禪) 제일가람을 이어가고자 하는

백양사 대중들의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행사에는 서용스님의 유품과 사진을 전시하여, 큰스님의 수행자적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古叢林白雲寺 주지 진수

행사내용 : 서용스님 탄신 100주년 참사람 결사법회
[서용대중사 유품 및 사진전 - 백양사 우하루]

일 시 : 불기 2556(2012)년 11월 23일
오후 1시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고불총림 백양사